

문화

광주·전남 젊은 작가들 '내공 폭발'

김경욱, 김경주, 정경진, 정유정. 이들의 공통점은 이름은 낯설지만 요즘 문단에서 잘 나가는 인물이라는 것. 최근 지역 젊은 작가들이 유명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촉망받는 작가로 선정되는 등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욱 소설 '위험한 독서' 동인문학상	김경주 차세대 시인 성장 젊은 예술가상	정경진 희곡 '푸르른 날에' 차범석희곡상	정유정 '내 심장...' 영화화 세계문학상
------------------------------------	------------------------------------	-------------------------------------	--------------------------------------

유명 문학상 휩쓸어 문단 두각

평론가·연극·영화계서도 주목

김씨는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으며 소설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베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컷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장편소설 '아크로폴리스' '모리스 호텔' '천년의 왕국' 등을 냈다. 2004년 단편소설 '장국영이 죽었다고?'로 한국일보문학상을, 2008년 '99%'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시인으로는 광주 출신 김경주(33)씨가 문단의 주목을 끌며 차세대 시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장래가 촉망되는 20~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올해 초 '2000년대 촉망 받는 젊은 시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도 계간 '서정시학'이 주관하는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우리 시대 대표 젊은 시인'으로 꼽혔다. 2003년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꽃피는 공중전화'가 당선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2005년 대산창작기금, 2009년 제3회

'시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타'와 산문집 'passport' '펄프 키드' '레인보우 동경' 등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 정경진(44)씨도 눈에 띈다. 정씨는 최근 제3회 차범석희곡상 희곡 부문(차범석연극재단 주관)에 당선되면서 작가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다. 당선작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휘말린 어느 남녀의 사랑과 인생역정을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본 작품이다. 정씨는 고교 졸업후 태권도장에서 4년간 사범(공인 3단)으로 일했고, 음악다방 DJ와 레스토랑의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도 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미 소설 세 편과 장막희극 두 편을 써 놓고 있다는 정씨는 하루 8시간씩 글쓰기에 전념하는 열혈파로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다. 올해 초 '내 심장을 쫓아'로 1억 원 고료 세계문학상(세계일보사 주최) 수상 소식을 안겨주었던 소설가 정유정(43)씨의 활약도 돋보인다. 정씨는 김별아('미실'), 박현욱('아내가 결혼했다') 등을 배출해낸 세계문학상을 거머쥐며 문단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제1회 청소년세계문학상(상금 5천만원)을 수상했던 정 씨에게 두 번째 찾아온 행복이

었다. 할평 출신으로 간호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정씨는 수상 이후 실세 없이 다음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으며 독자와의 만남, 강연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씨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졌다.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의 제작자 주피터 필름이 '내 심장을 쫓아'를 영화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영화는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연말쯤 촬영에 들어가게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도 영화사 측에 판권이 팔린 상태다. 정씨는 또 최근 영화잡지 '무비위크'가 선정한 '2009년을 빛낸 창조적 엔터테이너 30인'에 배우 김해자, 영화감독 박찬욱, 연극연출가 박근형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씨는 현재 댄스 배경으로 한 살 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 스텔러를 구상중에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10주년 음악회

6일 5·18문화센터 ... 위촉곡 묶어 음반도 준비

국악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전미향)가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9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의기투합해 창단한 '황토제'는 우리 음악의 정통성을 지키는 한편 국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국악 창작곡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단체다. '황토제'는 피리, 가야금, 대금 등 전통악기와 첼로,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등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편성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황토제가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6일 오후 7시30분 5·18기

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전·현직 단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무대는 남도음악의 진수를 할 수 있는 '시나위 합주'로 문을 열며 신민요인 '신랫노래'와 '홍겨운 마을', 남도 무속음악인 '진도 씨김굿'을 선보인다. 국악창작곡은 황토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10년 동안 작곡가들에 직접 위촉했던 '아름다운 인생 II-Passion', '상서로운 밤', '무등의 밤' 등을 선보이며 피날레 곡은 10주년 기념 위촉곡으로 이경섭씨가 작곡한 '비상'이 장식한다. 한편 '황토제'는 창단 10주년 기

념 음반도 준비중이다. 수록될 곡은 황토제가 정기공연을 위해 위촉한 작품들로 범승남, 김성국, 심선·박미영·김선제씨 등의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다. 수록곡은 '황토제' 2대 악장을 지낸 김선제씨가 곡을 쓴 실내악 합주곡 '아름다운 인생 2', '사자춤', 대금과 해금을 위한 '가을산', 피리를 위한 '꽃을 바치자이다', 국악가요 '무등의 밤', 'How grateful I am' 등 8곡으로 현 단원들 이외에 '황토제'를 거쳐간 유소희·김선제씨도 음반 녹음에 참여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의 재즈 여행

전남CBS 주최 6일 순천문화회관에서 콘서트

'가을밤에 떠나는 재즈 여행.' 전남CBS가 주최하는 'CBS 콘서트 재즈와 갈대의 속삭임'이 6일 오후 6시30분 순천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할평 출신으로 한국 재즈 음악을 대표하는 색소폰 연주가 이정식씨가 이끄는 이정식 오케스트라

가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유명한 이광조와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가 아름다운 재즈 넘버를 선사한다. 또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로 떠오른 전제덕씨의 무대도 준비돼 있



다. 초대권은 전남 C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901-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느질 동무들의 '퀼트'전

고근영 씨 등 참여 ... 5~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작은 천 조각을 손바느질로 엮은 '느림의 미학' 퀼트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전시가 열린다. 5~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바느질 동무-퀼트'전. 퀼트 동호회 '바느질 동무' 회원들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고근영, 김세연, 김영아, 박선미, 박옥란, 서병지, 양숙경, 이주희, 이진, 이희숙, 장민주, 전미진, 임선아, 최후자, 한미숙, 홍숙현씨 등

이 참여한다. 이들은 알록달록한 천으로 빚어낸 다양한 빛깔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퀼트 작품을 선보인다. 정혜화씨는 모자이크 처럼 작은 조각을 이어붙여 별 문양을 만든 '소망의 별'을 전시하고, 채숙영씨는 수 십개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풍경을 묘사한 '바람의 화원'을 선보인다. 문의 062-380-88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진 작 '가을의 속삭임'

자연사랑 전국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강원일보사 주최, 22일 평창 용평 돔 경기장

강원일보사와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제7회 자연사랑 전국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가 오는 22일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 돔 경기장에서 열

린다. 이번 대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

으로 열리고 글짓기(시, 산문), 그림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 대상 1명과, 금·은·동상, 가작, 입선작 등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참가신청은 강원일보사 문화사업국(www.kwnews.co.kr). 문의 033-258-125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최고급관
2관	바스티즈 : 거친녀석들 (18세)	
3관	파주 (18세)	
4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5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6관	여행자 (12세) / 하늘과 바다 (12세)	
7관	바스티즈 : 거친녀석들 (18세)	
8관	팬도럼 (18세) / 나는 비와 함께 간다 (18세)	
9관	디스트릭트9 (18세)	
9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 아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리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외국사거리 ♥에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2관	하늘과 바다 (12세)	
3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4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5관	파주 (18세)	
8관	마이클잭슨의 디스이즈 잇 (전체)	
7관	바스티즈 : 거친녀석들 (18세)	
8관	디스트릭트9 (18세) / 팬도럼 (18세)	
9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10관	바스티즈 : 거친녀석들 (18세)	

원도사랑 영화시영 • 메메 :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옆편)

1588-7941 상무병원 옆 평행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애자 (15세) / 씨토게이트 (15세)	
2관	볼꽃처럼 나비처럼 (15세)	
3관	파주 (18세)	
4관	부산 (15세) / 팬도럼 (18세)	
5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6관	디스트릭트9 (18세)	
7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8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9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10관	하늘과 바다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용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8시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담주점

고려사랑 고객콜센터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운 이마트포복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2관	디스트릭트9 (18세)	
3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4관	파주 (18세)	
5관	팬도럼 (18세) / 내사랑 내결에 (12세)	
6관	바스티즈 : 거친녀석들 (18세)	
7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자 사우너(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2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체)	
3관	파주 (18세)	
4관	하늘과바다 (12세)	
5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6관	나는 비와 함께간다 (18세)	
6관	정승필실종사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초년터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
총장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 ♥